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임희경·서선희(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근의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의 자립된 생활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주거환경정비는 노인복지정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주거환경요소이다. 자녀, 형제자매,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노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생활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환경계획을 고찰하고자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 형제자매,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광주광역시 및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60세이상의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총6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99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외한 총47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노인이 정서적으로 가장 의지하고 있는 인적인 자원의 관계로서는 자녀가 8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형제자매가 8.5%로 나타나, 노인의 정서적인 의존자는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특히 자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류가 가장 많은 자녀로서 장남(32.3%), 장녀(24.2%), 장남이외의 아들(23.8%), 장녀이외의 딸(19.7%)의 순으로 나타나, 장남과의 규범적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자녀의 거주거리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웃이나 근처인 경우의 접촉빈도는 거의 매일이 79.5%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거리가 멀어질수록 접촉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자녀에 따라서는 장남이나 장녀보다는 장남이외의 아들과 장녀이외의 딸이 상대적으로 노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형제자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77.9%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의 거주지는 같은 동네(14.3%), 같은 구(면내)가 15.2%, 같은 시내(군내)가 30.0%, 타지역이 40.5%로 나타났다. 접촉빈도는 일년에 몇 번 정도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한 달에 1, 2번 정도가 35.6%,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25.9%로 나타나, 형제자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가구가 상당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접촉빈도는 자녀와 마찬가지로 거주거리가 근접할수록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근거리의 형제자매는 노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서적 지원의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독거노인가구의 경우에 다른 가구형태보다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셋째, 친구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85.4%가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 같은 친구의 존재는 연령에 따라서 60대(92.2%), 70대(83.2%), 80대 이상(62.3%)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교제년수는 5년이하(19.5%), 6년-20년(33.5%), 21년 이상(47.0%)으로 나타나, 오랜 기간동안 우정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가 된 계기로는 집이 가까워서(46.7%)가 가장 높게 나타나 반면, 종교를 통하여(13.1%), 일이나 직장관계로(7.9%), 계모임(7.4%)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사회적인 연고보다는 이웃이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연에 의한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와의 접촉빈도는 친구의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거주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85.5%가 친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웃과의 교류는 연령별로 60대(91.3%), 70대(80.5%), 80대 이상(76.9%)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류가 있는 이웃의 수로는 한 집(16.0%), 두 집(25.8%), 세 집(20.9%) 네 집이상(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특히 독거노인가구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가구형태보다도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나, 노인부부가구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에 비하여 이웃과의 상호적인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형식별로는 아파트거주의 노인가구보다 독립주택거주의 노인가구가 이웃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지역별로는 광주시 거주 노인가구보다 광주인근지역거주의 노인가구가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자녀, 형제자매,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접촉빈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웃>친구>자녀>형제자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노년기의 사회적 접촉빈도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